

# 대타협기구 28일 종료... 공무원연금개혁 주말 분수령

### 새정치, 기여율 9%·지급률 1.7% 확정 제시

### 공무원 노조 '투쟁모드' ... 기여율 8%펜 수용할 듯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활동 종료로 이틀 앞둔 26일 분주히 움직이며 합의안 도출에 나섰으나 진통이 계속됐다.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 대표자 등 국민대타협기구 위원들은 이날 노후소득보장분과위와 연금개혁분과위를 각각 가동하며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에 나섰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좌표라고 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을 논의하는 노후소득분과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회의를 열었지만 여전히 각 주체들간 인식차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공무원연금에 대해 30년 기준 60%의 소득대체율을 주장하는 공무원노조 측은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의 상황 조정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확답을 요구하며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분과위원장인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동집행위원장은 회의에서 "여당이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벌써 했다"면서 "OECD 국가답게 상정적인 소득대체율도 하나 합의 못 하는

기구를 국회에 왜 만들었느냐"고 비판했다.

노후소득분과위는 이날 오전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 등 노후소득 증대 방안,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도록 설계돼 있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에 대한 정부 측의 보고도 받았다.

이날 오후에는 공무원연금 제도의 틀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과 기여율과 지급률 등 핵심 변수만 조정하는 '보수(母數)개혁'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연금개혁분과위도 막판 타협안 도출에 나섰다.

질충안으로 저축계정 도입안(김태일 교수안)이 유력하게 떠오른 가운데 야당이 전날 제시한 소득재분배 기능 추가 등을 놓고도 여야와 정부, 노조가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한편 자체 개혁안의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않았던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을 9%, 연금 지급률을 1.7%로 사실상 확정했다. 여·야 개혁안을 모두 비판하

■ 與·野·政·勞 공무원연금 개혁안 비교 (재:재직공무원, 신:신규공무원)

	현행	새누리당	정부	새정치연합	공투본
기여율	7%	재)8%→10% 신)4.5%	재)8%→10% 신)4.5%	9%	8%
지급률	1.9%	재)1.35%→1.25% 신)1.15%→1%	재)1.5% 신)1.15%→1%	1.7%	1.9%
퇴직수당	민간대비 39%	민간대비 100%	재)불변 신)민간대비 100%	불변	불변
소득재분배 기능	없음	(A+B)/2	(A+B)/2	기여율 4.5% 및 지급률 1.0%에 (A+B)/2 방식 적용	수용 곤란
기준소득 상한	1.8배	1.5배	1.5배	임정없음	하향조정
감소분 보전	없음	저축계정 도입 검토 (김태일 교수안)	없음	김태일 교수안 반대	김태일교수안 반대

는 노조는 '투쟁 모드'를 이어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기여율을 8%로 높이면서 간접적인 소득재분배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26일 "25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표현된 'α값'은 2%포인트, 'β값'은 0.2%포인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공개한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에서 기여율은 '7%+α', 지급률은 '1.9%-β'로 제시했다. 결국 새정치연합이 확정

한 기여율은 9%(현행 7%에서 2%포인트 인상), 지급률은 1.7%(현행 1.9%에서 0.2%포인트 인하)인 것이다.

국민대타협기구는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음에 따라 27일로 전체회의를 하루 연기했다.

이런 가운데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약 7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29일 영암서 국내 최대 모터사이클대회

국내 최대 모터사이클 경주 개막전이 29일 영암 F1경주장에 펼쳐진다.

전남도는 26일 "대한모터사이클연맹이 주최하던 'KMF 코리아 로드레이스 챔피언십'이 올해부터 전문 프로모터인 '라이딩원'이 주최·주관하고 대회 명칭도 '코리아 슈퍼바이크(KSBIK)'로 변경돼 개막한다"고 밝혔다.

올해 모두 5개 라운드 중 영암서 경주장 4회, 인제 스피드우서 1회 개최될 예정으로 시즌 우승을 향한 뜨거운 질주가 영암 F1 경주장에서 시작된다. 개막전에는 1000cc 국내 최정상급 슈퍼바이크가 출전하는 SB1000과 신인 발굴을 위한 루키챌린지, 빅스 쿼터 대항전 등 5개 클래스에 105명이 참가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선수는 물론 일반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서울에서 영암까지 장거리 이동이 부담스러운 관람객을 위한 단체버스를 준비해 관람 편의를 제공한다.

조성태 라이딩원 대표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침체됐던 국내 모터스포츠 시장이 활성화되고, 선수들에게는 국제경기 참가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줘 앞으로 한국이 모터스포츠 선진국 대열에 설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영암 F1경주장 상설빌딩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대회 및 관람 문의는 대회 라이딩원(031-721-8646)으로 하면 된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박대통령 '김영란법' 재가... 내년 9월 시행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절차를 거쳐 27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정부는 24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처럼 대통령 재가라는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김영란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된다.

이 법은 공직자의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 형사법 체계와 충돌하고 '연좌제'에 해당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부정청탁의 개념과 행위 유형이 모호하다는 점, 언론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안중근 의사 추모식 다 랜서 첫 정부행사

안중근 의사 순국 105주기를 맞아 안 의사가 일제에 의해 처형된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렌(大連)에서 26일 그의 송고한 애국정신과 평화사상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개최됐다.

국가보훈처가 주최하고 한중친선협회(회장 이세기 전 통일부장관)와 다렌 한인회(회장 박신현)가 공동 주관하는 추모행사는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간) 다렌시 위순(威順)구에 있는 위순감옥 박물관 내 안 의사 기념관에서 추모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추모식에는 정부 대표인 이경근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과 한중친선협회 이사장인 새누리당 서정원 의원, 같은 당 김기선 이종진 최봉홍 의원, 교민, 유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 광주시, 해외 문화도시 교류 확대 공들이기

### 중 청다오시 '동아시아 문화도시' 참가

지난해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광주시가 해외 문화도시들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광주시는 2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을 알리고 동아시아문화도시들간 문화교류를 위해 28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청다오시(靑島) 대극원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리는 '2015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행사'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위원장 정동채), 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가한다.

이 행사는 올해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한국의 전주, 중국 청다오, 일본 니가타 등 3개

도시가 문화교류 사업을 본격 시작하는 자리다. 지난해 초대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광주시는 이들 도시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행사에 참석한다. 광주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도시간 협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행보다.

시는 향후 매년 3개씩 새로 선정되는 문화도시들과도 각종 문화교류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중국 취안저우시, 일본 요코하마시와 함께 국제 학술세미나, 광주 ACE Fair 특별전시, 7080 총장축제, 현대미술전 등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열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박대통령, 천안함 옹사 묘역 참배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옹사 5주기 추모식에 앞서 묘역을 참배한 뒤 고 박석원 상사 아버지 박병규 씨를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해 예술지원 규모 2조1624억 ... 공공부분이 94%

### 문화예술위원회 첫 통계

한해 동안 공공과 민간부분의 예술지원 사업의 총 규모가 모두 2조16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센터가 공개한 2013년 통계에 따르면 공공부분이 94%에 이르는 2조348억원이며, 민간 부분은 6%인 1276억원에 그쳤다. 이는 국내외 공공 및 민간 분야 예술지원

사업 현황에 대한 첫 공식 통계조사 수치다.

공공부분 지원사업은 부문별로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이 53.5%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하드웨어 건립(20.7%)과 교육 및 향유 지원(11.9%), 창작지원(7.3%), 유통 및 매개지원(4.9%), 예술가 복지지원(1.2%) 등 순이었다.

민간 부문에선 문화예술 시설 운영이 38.0%를 차지했고, 지역사회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문화예술단체지원이 각각 25.0%와 11.0%로 그 뒤를 이었다. /윤영기자 penfoot@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Road to Nature, Gurye

봄이 봄에 당신과 걷고 싶은 구례벚꽃길

오산과 함께하는 섬진강길 벚꽃나들이 제11회

구례 섬진강변 벚꽃축제

2015년 4월 4일~4월 5일  
문척면 섬진강변 일원

주관 | 구례군 주최 | 섬진강변벚꽃축제추진위원회(문척면청년회) 주요행사 | 벚꽃노래자랑, 문화공연, 벚꽃길 걷기 등 문의전화 061-780-2820 ※구례군과 구례군의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